

## 젠데코 춤과 휴탄 마와시

9월 25일 저녁 7시 30분부터 오카 텐만구 신사에서 열리는 축제로, 오무타시는 이 축제를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. 정확한 유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에도 시대(1603~1867)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

젠데코 춤은 기모노와 꽃 장식이 달린 삿갓을 착용한 젊은 여성과 소녀들이 선보이는 공연입니다. 각각 오른손으로 동전 6개와 방울이 든 대롱을 돌리는데 몇 걸음 걸을 때마다 잠깐 멈춰 서서 대롱으로 몸을 두드립니다. 이 춤은 벼 재배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며 풍작을 기원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.

그 다음에는 ‘휴탄 마와시’가 이어집니다. 얼굴에 먹칠 바르고 전통적인 작업용 기모노와 짚신을 착용한 남성과 소년들이 구부정하게 발을 끌며 걷는 춤을 선보입니다. 이들은 왼손에 든 조롱박을 오른손에 든 부채로 치면서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합니다. 이 춤은 술이 가득 담긴 조롱박을 들고 비틀거리며 신사에 기도하러 온 남자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. 이는 강우의 신에게 바쳐진 것으로 여겨집니다.

신사는 신오무타 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지만, 근처에 주차장이 없습니다. 제한적이지만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.